

환경적·사회적 영향 및 효율적인 국토 이용을 고려한 태양광·풍력에너지 건설 방안

이 희선, 안 세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녹색성장 및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정책에 힘입어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시장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고,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solar photovoltaics)과 해상풍력(offshore wind)의 발전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매우 세세한 입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발전기 또는 단지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수용성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를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요소에 따른 거부감에 의한 것으로, 환경적인 요소만으로 발전단지를 도입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발전단지의 성공적인 건설, 운영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러 인한 사회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또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통한 수익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어 업체 및 지자체들 간에 과열양상이 나타나 무분별한 허가와 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 파괴를 통한 친환경 시설 건설’이라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건설되었거나 건설 예정인 태양광 및 풍력발전단지의 입지에 따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환경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들 입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보급됨에 있어 환경 친화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